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입장에 관한 연구

정 호 경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jhkworldcup@naver.com)



국문 요약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을 개시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중국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국은 다소 소극적인 대응과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중·러 관계, 중·우크라이나 관계, 중·미와 중·EU관계로 인해 선택의 딜레마에 빠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딜레마적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과 대응 관련 논의들을 정리하고 중국과 관련된 문제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시점을 점검하고 중국의 입장 변화를 분석해 향후 중국의 대응을 전망하는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입장, 중국의 딜레마, 중·러 관계

I. 서론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와 2022년 초, 벨라루스와 크림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경 전반에 걸쳐 행해진 합동 훈련 및 대규모 병력의 이동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암시하는 요인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크라이나의 고위 관료들은 침공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중앙일보 22/01/26).¹⁾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간 유지되었던 유럽의 평화가 쉽게 깨지리라 생각하지 않았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반발 예상과 명분이 부족한 러시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고대로 푸틴은 2월 21일 우크라이나 돈바스(Donbass)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는 문서에 서명을 시작으로 사흘 뒤인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을 개시하였다. 압도적으로 차이나는 군사력으로 인해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격과 함께 단기간에 전쟁이 끝이 날 것으로 예상했었지만, 지난 6월 3일 전쟁 발발 100일째를 지나며 장기화로 접어들고 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는 예상외로 강한 항전 의지를 보였고 서방의 지원이 이어지면서 장기화의 단계로 돌입하면서 전쟁의 양상은 앞날을 쉽게 예견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의 선전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소위 민주주의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쟁의 성격 역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자의 대결 구도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 양상으로 바뀌었다(박성준 2022, 14). 우크라이나 전쟁은 문명 간, 이익 간, 이데올로기의 충돌 등 다양한 성격이 중첩된 전쟁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국제정치경제의 질서를 뒤흔드는 주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서정경 2022).²⁾

침공을 감행한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강력한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다. 2022년 2월 이후 시행된 대러시아 제재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최근까지 시행된 제재와는 그 규모와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교역, 금융, 에너지를 비롯해 광범위한 경제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포함해 57개의 품목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고 유럽연합을 포함한 일본, 캐나다 한국까지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핵심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었고 미국 금융시장에서 러시아 중앙은행, 국부펀드, 재무부의 채권 발행 및 유통이 제한되었다(조영관 2022).³⁾ 이외에도 러시아

1)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715> (검색일: 2022. 07. 12.).

2) 출처: <http://diverseasia.snu.ac.kr/?p=5739> (검색일: 2022. 07. 12.).

3) 출처: <http://diverseasia.snu.ac.kr/?p=5781> (검색일: 2022. 07. 12.).

은행들을 대상으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퇴출⁴⁾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푸틴의 일방적인 침공 결정을 비난하면서 한편에서는 중국의 행보에 관심을 가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주목받게 된 것은 최근 밀착 행보를 보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왔다. 2021년 우크라이나 갈등상황이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은 시종일관 중립적인 태도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중국의 태도가 러시아로 편향되는 태도를 보인 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푸틴(Putin)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나서부터였다. 시진핑과 푸틴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고,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계속 유지하며, 에너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강화, 과학 기술 혁신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재정 및 금융 정책에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과 금융 위협에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등 러시아와의 협력의 의사를 표현했고 러시아 역시 중국을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이자 뜻을 같이하는 친구로 간주한다고 회답했다(新华网 22/02/04).⁵⁾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조짐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중국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 러시아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을 통해 위기 상황을 타개할 가능성과 중국의 대응에 따라 러시아에 행해지는 경제제재의 실효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 국제사회가 중국의 입장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다소 소극적인 대응과 함께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딜레마에 빠졌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중국은 복잡한 처지에 처해있다. 중국은 중·러 관계, 중·우크라이나 관계 그리고 미국 및 EU와의 관계 모두를 고려해 행동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러시아와의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고, 우크라이나와는 일대일로 유럽-중국 화물철도 노선의 경유지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중요 거점 국가이다. 미국과 EU가 앞장서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돕는 것은 그동안 공들여왔던 EU 시장을 잃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또 다른 충돌 지점을 만드는 것이다.

4)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는 달러화를 기반으로 현재 200개국 1만 150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어 사실상의 글로벌 금융결제의 표준이며, 러시아 금융 거래의 80%가 SWIFT 결제로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2위의 SWIFT 거래국이다.

5) 출처: http://www.xinhuanet.com/asia/2022-02/04/c_1128330398.htm (검색일: 2022. 07. 12.).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시각,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추세를 전망하기 위한 중국의 입장 관련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이영학 2022; 임진희 2022; 정태요 2022; 표나리 2022; 성기영 외 2022; 황상필 2022; 최소령 외 2022; 서정경 2022).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으로 중국의 입장표명과 더불어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고 있다. 전쟁 상황의 수시 변화라는 변수를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연구의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 전망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까지 나온 중국의 대응 관련 논의를 정리하고 딜레마적 상황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Ⅱ.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국제사회의 대응

지난 2022년 7월 4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11,000여 명이 넘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중 사망자는 약 5천 명에 이르고 있다.⁶⁾ 군인은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난민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대규모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전쟁 발발과 함께 유럽의 주요국과 세계의 언론들은 러시아의 침공행위를 일제히 규탄하였다.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뤄졌고 전쟁을 직접 지시한 푸틴은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하는 전망이 많았지만, 우크라이나의 강한 항전 의지와 서방 국가들의 지원으로 인해 전쟁은 양측 모두에게 큰 피해를 남기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빼앗긴 남부 해안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100만 명의 군을 집결시키고 있어 앞으로 더욱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TheTimes 22/07/10).⁷⁾

1.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1)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가치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라면 푸틴의 침공 결정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푸틴이 침공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리고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비난과

6) 출처: <https://www.ohchr.org/en/news/2022/07/ukraine-civilian-casualty-update-4-july-2022> (검색일: 2022. 07. 12.).

7) 출처: <https://www.thetimes.co.uk/article/ukraine-has-one-million-ready-for-fightback-to-re-capture-south-3rhkrhstf> (검색일: 2022. 07. 12.).

고립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이라는 수단을 동원하게 된 원인은 한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가치를 논의하기 위해선 2014년에 병합된 크림반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크림반도에 위치한 세바스토폴은 소련 시절부터 흑해 함대가 오랫동안 주둔하며 핵심 군사기지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다. 러시아가 2042년까지 세바스토폴 항구의 이용 권리를 획득하고 난 뒤, 러시아계 주민의 이민이 늘어났다. 결국, 절반 이상의 러시아계 주민이 거주하게 되면서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발트해로의 진·출입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한 태평양과 크림반도를 통한 흑해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러시아의 숙명인 남진을 위한 노선의 시작점이 크림반도였고 러시아로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요충지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북쪽과 서쪽으론 유럽, 동쪽으론 아시아, 남쪽으론 중동을 향할 수 있는 곳이다. 러시아로선 서방세력과의 완충지대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곳이기도 하다. 또한, 러시아의 가스관이 지나가고 우크라이나 국경으로부터 모스크바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500km 내외라는 점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반하는 세력이 등장한다는 것은 러시아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인 것이다. 일찍이 브레진스키(Brezinski)가 언급했듯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해야지만 5,200만 명의 인구와 주요한 지하자원, 흑해로 통하는 길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는 러시아를 다시 유라시아의 강대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푸틴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다(Z. Brzezinski 2000, 70).

2) 나토(NATO)의 동진

우크라이나가 가지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을 필두로 한 나토의 동진을 유인하기에 충분했고 우크라이나로 확대되는 나토의 확장은 러시아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냉전이 종식된 직후 유럽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서유럽 지역, 폴란드, 헝가리 등의 중간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족주의 정체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동유럽과 발칸 유럽의 외곽지역 등 3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나토는 주로 중간지역과 동유럽 및 외곽지역에서 발생하는 인종분규와 영토분쟁 등이 서유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시급한 임무로 판단했고, 서유럽의 평화를 중·동유럽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나토의 확대 정책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하였다(이수형 2022, 3).

러시아는 나토의 확대를 1989년 독일 통일을 위한 미·소 간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독일 통일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나토의 확대 금지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증명할 공식적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94년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나토의 확대 정책이 공식화되면서 1999년 1차 신규회원국(헝가리, 폴란드, 체코)을 받아들이며 2020년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동진해갔다. 러시아와 나토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다. 1998년 엘친 대통령 집권 시기 러시아는 나토에 상주대표부를 개설해 분쟁 예방, 군축, 핵안전 이슈 등의 문제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홍완석 2005, 524-531). 다만,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의 나토 가입, 코소보 사태에서 일방적인 군사개입을 하는 등 나토의 활동 범위가 점점 구소련 및 기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이자 이에 반발해 나토 대표부를 철수시켰다(김규철 2022, 7). 미국 봉쇄정책의 틀을 세웠던 조지 케난(George Kennan)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와 발틱 3국에 대한 나토의 동유럽 확장이 특별한 안보 이익도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위협인식과 반감만 사는 치명적 실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신성호 2022).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건 2008년에 있었던 부쿠레슈티(Bucharest) 나토 정상회담이었다. 미국의 주도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과 관련된 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프랑스와 독일 등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두 국가의 가입은 러시아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고 결국 두 국가의 회원 자격 행동계획의 비준을 무기한 연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었다.⁸⁾ 당연히 러시아의 반발을 샀고 회담 4개월 뒤인 2008년 8월 러시아는 조지아를 침공했고 14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 표적이 되었다.

3) 회색지대전략을 통한 미국의 러시아 압박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 러시아는 아주 제한된 전력만을 통해 목표를 이루었다.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불리는 새로운 방식은 회색지대 전략과 함께 21세기 안보 지형을 뒤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2008년 조지아 침공을 통해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러시아는 개혁을 통해 새롭게 러시아군을 재편했고 2014년 하이브리드 전쟁을 통해 크림반도를 손에 넣었다.⁹⁾

반면,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어서 러시아는 전면전을 선택했다. 미국이 2014년 이후 꾸준히 발전시켜온 회색지대전략이 러시아의 선택지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정학적 공간뿐만 아니라 경제, 군사, 사이버 분야 등 다방면에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8) 출처: https://www.nato.int/cps/en/natohq/official_texts_8443.htm?selectedLocale=en (검색 일: 2022. 07. 12.).

9) 러시아의 군사 개혁과 하이브리드 전쟁에 관해서는 김경순(2018), Barabanov 외(2012) 참조.

전쟁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영역과 관련해서는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상대를 위축시키는 전략으로 활동 영역을 축소해 버리는 방식을 사용한다(고명현 2022, 6-7).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미 의회 조사국(CRS)의 새로운 강대국 경쟁: 미 국방성에 대한 함의와 의회 현안(Renewed Great Power Competition: Implications for Defense-Issues for Congress) 보고서에는 미국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해 왔는지를 엿볼 수 있다. 보고서에선 미국과 동맹국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정보작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행해지는 중국의 살라미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다. 특히 부록E에서 하이브리드 · 회색지대전략과 관련된 목록을 보면 2015년부터 미국은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⁰⁾

미국은 2014년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과거와 달리,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까지 정보기관을 이용해 러시아를 상대로 다양한 영역에서 강력한 정보전을 수행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침공 시기까지 예측을 당하며 다음 행보까지 꿰뚫리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정보 공작을 수행할 수 없었고 2014년의 하이브리드 전쟁과 같은 위력은 발휘하지 못했다. 물론 미국의 이 같은 대응은 러시아로 하여금 전면전과 후퇴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몰아붙였고 군사적 우위에 있던 러시아는 전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말이다(고명현 2022, 8-9).

4) 동맹의 부재와 역제의 실패

러시아가 전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후퇴함으로써 푸틴이 받아야 했던 정치적 압박도 존재했겠지만, 우크라이나가 가졌던 동맹의 부재와 미국과 EU의 역제가 실패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제는 본질적으로 적의 싸우려는 의지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역제의 효과는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결합되어 적절한 수준의 보복 위협이 수단으로 제시되어야 기대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역제수단은 군사력이며 정치외교적 조치와 경제제재 등도 비군사적 수단으로 포함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군사력을 제공하는 후견국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신뢰성이 결정되는데 잠재적 공격국이 후견국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면 신뢰성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 미국과 EU가 보여준 군사력은 러시아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했다(이흥석 2022, 22).

러시아의 침공 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접경에 배치한 병력은 러시아에 비해 형편없을

10) 출처: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3838/92> (검색일: 2022. 07. 12.).

정도로 적었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연합훈련에 관한 대응이라곤 그저 우크라이나에 무기만을 지원하는 소극적 행보를 보였다. 대신에 선택한 역제의 수단은 경제제재의 방식이었는데 러시아는 이를 비롯 2022년 1분기 사상 최고치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YTN 22/04/19).¹¹⁾ 러시아에게 신뢰성을 심어주지 못한 것은 과거의 경험도 한몫했다. 2008년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하고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나토는 적극적인 개입을 지양했고 이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면전에 미국과 나토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주었다고 판단된다.

만약 2008년 부쿠레슈티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이뤄졌다면 쉽게 침공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라 쉽게 예견하긴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면전의 결정은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취한 모호한 태도가 푸틴에게 기회를 준 것임은 분명하다.

2. 국제사회의 대응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의 유럽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정치경제에서 러시아는 에너지와 식량, 그리고 전략 자원의 공급자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었고 우크라이나는 농산물의 주요 글로벌 공급자였기 때문에 상호의존에 얽여 있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은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UN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했고 러시아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¹²⁾ 나토는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 국경에 전투병력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지원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ALJAZEERA 22/02/25).¹³⁾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은 받지 못한 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대전차 무기와 각종 보급품을 보급받으며 러시아를 향한 항전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칸(Karim Khan) 검사는 관할권을 행사해 우크라이나 내에서 저지른 대량 학살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전쟁범죄를 조사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REUTERS 22/02/28).¹⁴⁾

11) 출처: https://www.ytn.co.kr/_ln/0104_202204190354281355 (검색일: 2022. 07. 12.).

12) 출처: <https://press.un.org/en/2022/ga12407.doc.htm> (검색일: 2022. 07. 12.).

13) 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22/2/25/nato-allies-to-provide-more-weapons-to-ukraine-stoltenberg-says> (검색일: 2022. 07. 12.).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로 접어들 기미가 보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면서¹⁵⁾ 전쟁의 성격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뤄진 나토의 직접적인 참전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실행하였다. 우선 러시아를 SWIFT 결제망에서 제외시켰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을 동결시켜 약 63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외환을 사용 불능으로 만들어버렸다. 영국은 러시아 은행을 영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시켰고 모든 러시아 은행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방면에서도 EU는 2022년 말까지 러시아에서 해상으로 수입되는 모든 석유를 금지할 것을 밝혔고 미국 역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한, 러시아 국가가 아닌 개인을 향한 제재도 이뤄졌다. 미국, EU, 영국 및 기타 국가들은 1,000명 이상의 러시아 개인과 기업을 제재했다. 여기엔 러시아 정부의 관리와 가족들까지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러시아산 금의 수입이 금지되고 사치품 수출 금지되고 심지어 러시아의 항공편까지 금지되었다. 이런 상황에 버티지 못한 상당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였다(BBC 22/06/27).¹⁶⁾

그러나 한 국가를 향한 전 세계의 동시다발적 경제제재는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제재에 따른 반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를 향한 제재의 영향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서 언제까지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침공 후, 4개월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세계경제는 코로나19의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한 채 국제유가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100달러를 넘어섰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러시아의 팔라뚝 수출, 우크라이나의 네온 수출 관련 문제로 반도체 부족 현상은 더욱 악화될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심각한 것은 식량난인데 전쟁의 여파로 식량가격이 상승하면서 최빈국들의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연합(AU)의 경우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구입에 대한 대금 지급을 대러시아 경제 제재의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나섰고(시사저널 22/06/20)¹⁷⁾ 예일대의 티머시 스나이더 교수는 푸틴이 전쟁을 통해 식량난민을 생산해 유럽으로 난민 유입을 유도해 유럽의 불안정을 유발할

14)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ukraine-lodges-case-against-russia-world-court-zelensky-2022-02-27/> (검색일: 2022. 07. 12.).

15) 유엔총회에서 진행한 러시아의 전쟁 중단 및 군대 철수 결의안의 찬성국은 141개국에 달했지만, 반대와 기권은 각각 5개국, 35개국이다.

16)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0125659> (검색일: 2022. 07. 12.).

17) 출처: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753> (검색일: 2022. 07. 12.).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¹⁸⁾

경제제재의 장기화 우려에 따른 국제사회의 여론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는 반대로 나토는 유럽에서 더욱 팽창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적 중립 노선을 취해온 스웨덴과 핀란드가 지난 5월 18일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랫동안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적 입장을 지켜온 두 국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입 요구의 여론에 편승해 나토 가입을 결정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고 핀란드에 전력 수출과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단순히 회원국 2개가 늘어나는 수준 이상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선 냉전 이후 유지해왔던 완충지대를 잃게 되는 것이고 나토와 1340km라는 국경선을 직접 맞대야 하는 부담감도 생긴다. 더 큰 문제는 발트해가 나토의 내해(內海)가 되고 이는 결국 러시아가 서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잃게 되는 셈이다.

한편,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히 복잡한 주사위를 굴리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심적인 지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한국, 호주, 싱가포르 등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악화에서 파급되는 부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아시아 국가가 미국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와 중국이다. 인도는 양 진영 사이에서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과거 소련이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던 틈을 타 중국을 견제할 또 다른 대안으로 소련의 관심을 받았다. 인도와 소련의 우호관계는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이어받았고 현재까지 인도의 최대 군사 장비 및 기술 공급국으로써 자리잡고 있다(SIPRI 2022, 6).

인도는 UN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유엔총회 결의에서도 기권했고 경제제재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비동맹주의에 영향도 있고 러시아와 관계 악화 시 라이벌인 파키스탄과 중국을 견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윤영관 2022). 중국은 전쟁 발발 초기 '전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회피해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모두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인도와 마찬가지로 유엔총회 결의에서 기권했고 전쟁의 성격을 중국이 먼저 규정함으로써 발생할지 모르는 특정국 편중의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고 양측에 균형을 맞춘 정치적 해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성기영 외 2022, 64-65).

18) 출처: <https://twitter.com/timothydsnyder> (검색일: 2022. 07. 12.).

Ⅲ. 중국의 시각과 대응

1. 중국 정부의 입장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고 중국의 입장이 드러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침공 다음 날인 25일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준수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央视网 22/02/25).¹⁹⁾ 침공 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같은 날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영국 외교장관, EU 외교 고위대표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 고문과의 전화통화 후, 발표한 5가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a).²⁰⁾

첫째, 중국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이 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하게 적용된다; 둘째, 중국은 공동 · 통합 · 협력 · 지속가능한 안보관을 옹호하며,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는 존중받아야 하며, 5차례에 걸친 나토의 동진 상황에서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요구는 중시되어야 한다; 셋째,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의 전개에 주목하며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통제 불능으로 치닫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일반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아야 한다; 넷째, 우크라이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직접 대화 협상을 환영한다.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가 유럽 안보문제에 있어 평등한 대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유럽안보기제를 창출할 것을 지지한다; 다섯째,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각국의 보편적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여긴다. 또한, 안보리는 상황을 고조시키기보다 긴장을 완화하는 외교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안보리 결의가 무력 사용과 제재의 권한을 부여하는 7장을 인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다.

19) 출처: <http://tv.cctv.com/2022/02/25/VIDEgZRP9aE1IUhNDfTyK4BP220225.shtml> (검색일: 2022. 07. 13.).

20) 출처: http://newyork.fmprc.gov.cn/web/wjzbzhd/202202/t20220226_10645790.shtml (검색일: 2022. 07. 13.).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합리적 안보 우려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옹호하며, UN의 무력 사용 및 제재 결의에 관해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러시아 편향적인 입장은 3월에 접어들면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데, 3월 18일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부터다. 바이든은 시진핑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물질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결과와 대가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했고(The White House 2022) 중국은 이에 명시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충돌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친강(秦剛) 주미중국대사가 3월 23일 봉황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는 금지 구역이 없지만, 마지노선은 존재한다고 밝히며, UN 헌장 원칙, 공인된 국제법,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 등이 마지노선이라는 발언을 한다(凤凰网视频 22/03/23).²¹⁾ 이는 지난 2월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우호에는 한계가 없다던 표현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 변화와 함께 주목해 볼 것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전쟁이 장기화되어 가면서 그 범위와 제재로 인한 영향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자 간의 대립에서 점차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으로까지 확대되어 국제전 양상을 띠고, 중국도 전쟁의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이해득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번 전쟁을 안보문제의 시각에서 본다면 EU와 러시아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넘어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중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곧 국제질서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중국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방이 진영 대립을 꾀하며 대만 문제와 연결 짓고 있다고 인식한다(성기영 외 2022, 68).

이런 중국의 인식 변화는 지난 7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자이산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 표명에서 드러난다. 왕이 부장은 기회를 틈타 냉전적 사고를 선동하고 진영 대립과 ‘신냉전’을 조장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중잣대를 적용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하고, 타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와 이익을 해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인민망 22/07/08).²²⁾

21) 출처: <https://finance.ifeng.com/c/8EbnZqDX8qa> (검색일: 2022. 07. 13.).

22) 출처: <http://kr.people.com.cn/n3/2022/0708/c203278-10120689.html> (검색일: 2022. 07. 13.).

2. 중국 내 시각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중국 정부와 고위 관료들은 다소 원칙적이고 전형적인 입장을 보여줬지만, 중국 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시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에 관한 시각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대응의 측면에서 중국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시각과 중립적 태도를 버리고 세계의 주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시각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가 정부와 이를 지지하는 전략가들의 시각이라면, 후자는 이를 비판하는 전략가들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중국-러시아 삼각관계, 중국-유럽-우크라이나 삼각관계, 외교-안보-경제 삼각관계, 정부-언론-국민 정서의 삼각관계 등 4가지의 삼각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 차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최소령 외 2022, 109). 반면, 후자의 경우는 러시아는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는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것이고, 결국 미국이 세계 리더십을 회복한 뒤 유럽과 더 긴밀한 운명공동체를 형성할 것이 전망한다. 중국이 러시아와 선을 확실히 긋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최소령 외 2022, 110).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러시아가 키이우(Kyiv) 점령에 실패하고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반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실패도 귀를 기울일만한 의견이다.

전쟁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더 다양하다. 후웨이싱(胡伟星 2022)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나토 간의 지정학적인 대결이며 소련의 붕괴로 생겨난 유라시아의 심장부(heartland)의 지정학적인 공백을 나토가 침식해감으로 인해 러시아의 반발을 샀다는 것이다. 푸단(复旦)대학 국제문제연구원부원장이자 러시아중앙아시아연구소 주임인 평위쥔(冯玉军, 22/05/21)²³⁾교수 역시 이번 전쟁을 러시아가 '탈소련공간'의 지배력을 회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거대한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시각은 이번 전쟁에서 원인으로 주목받는 나토의 동진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본질은 냉전의 결과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의 심각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냉전이 종식된 후, 미국은 일극 세계를 구축하고 유럽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나토를 약화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나토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할 잠재적 적으로 러시아를 인식했다. 반면,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30년 동안 유럽으로 진정 통합되려는 노력을 했지만, 러시아가

23) 출처: <https://m.aisixiang.com/data/133907.html> (검색일: 2022. 07. 13.).

꿈꿨던 ‘유럽의 꿈’은 실패했고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에서의 민족 정체성의 차이가 지금의 충돌을 가져왔다고 본다(倪峰 외 2022, 61).

중국의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번 전쟁을 바라본다. 일련의 언론 보도들은 이번 전쟁을 미국 위주의 서구 대 러시아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고 중국이 러시아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관련 사실들을 보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나토를 조종해 러시아의 정당한 행보를 막으려고 노력하며 최종적으로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를 공고화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탈냉전 이후 영향력이 감소하던 중 발생한 이번 전쟁이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공포심을 자극해 나토와 미국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다(임진희 2022).²⁴⁾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정세 및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는 사건이 되리라는 점에선 중국의 주요 싱크탱크와 전문가들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신냉전과 전쟁으로 인한 대균열의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러시아는 서방과 급속한 디커플링이 이뤄질 것이며, 세계화는 지역화의 흐름으로 변화해 갈 것이란 견해들이 제기되었다(闫琪 22/05/22).²⁵⁾

IV. 중국의 딜레마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막강한 러시아의 군사력과 과거 크림반도 합병의 사례를 경험 삼아 전쟁이 초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뜻밖에 끈질긴 우크라이나의 저항 능력과 서방의 지원, 러시아를 향한 강력한 경제제재 등의 이유로 전쟁은 장기화로 접어들고 있고, 3~5일의 초단기 전으로 전쟁을 끝내겠다는 푸틴의 구상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²⁶⁾ 전쟁이 단기간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이 났다면 중국은 초반 러시아의 입장을

24) 출처: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6344&mid=a20200000000&board_id=4 (검색일: 2022. 07. 13.).

25) 출처: http://www.cssn.cn/zx/bwyc/202205/t20220522_5409167.shtml (검색일: 2022. 07. 13.).

26)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대사는 위키트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점,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했다는 점, 미국과 나토의 대응을 과소평가했다는 점 등 푸틴이 3가지 오판을 한 탓에 러시아와 푸틴이 수세에 몰렸다고 밝혔다. 위키트리 22/03/08. 출처: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37414> (검색일: 2022. 07. 13.).

지시하여 중·러 관계의 우호를 돈독히 하고 국제사회한테서 나올 수 있는 비난과 중국 책임론을 시간차로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일방적인 침공을 단행한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강한 규탄과 비난이 이어지면서 러시아와 전략적 우호 관계를 맺고 있던 중국에게 비난의 화살이 겨워졌다. 중국은 당사국과 주변국의 복잡한 관계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1. 미·중·EU의 복잡한 삼각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후, 당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강대국들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전쟁의 양 당사국을 포함해 대러시아 제재에 앞장서는 국가들과도 중요한 관계에 놓이다 보니 쉽지 않은 대응이 예측된다.

우선, 중국이 당면한 가장 큰 대외문제는 미국과의 경쟁이다. 트럼프의 대중 견제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바이든은 트럼프 시기보다 더 치밀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과거 냉전 시기를 연상시켜 ‘신냉전’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가로 인해 냉전 시기와 같은 극단적인 단절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미래세대를 주도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기술 분야와 국가 안보 분야에서의 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중의 패권경쟁은 무역, 첨단기술을 넘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라는 가치의 경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속을 통해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진행 중이다.²⁷⁾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EU를 결속시켜 반권위주의 진영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전쟁의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내리는 결정들이 향후 미·중 패권경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Ryan Hass 2022).²⁸⁾

현재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원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인 지원은 제한적이고 절제되어 나타난다. 러시아의 안보를 우려를 이해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는 시각을 가졌지만, UN의 두 차례에 걸친 결의에선 기권을 선택했다. 이는 러시아의 안보 불안에는 동의하지만, 무력을 동원한 전쟁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황상필 2022, 67).

27) 출처: <https://www.state.gov/further-information-the-summit-for-democracy/> (검색일: 2022. 07. 13.).

28) 출처: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2/03/01/ukraine-presents-opportunity-to-test-chinas-strategic-outlook/> (검색일: 2022. 07. 13.).

중국은 서방 대 러시아의 ‘신냉전’구도를 바라는 상황이 아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벌인 전쟁으로 인해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박을 중국이 나눠서 지고 있는 상황이 내키지 않을 것이다. 과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 소수민족이라는 약점을 가진 중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 것도 러시아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이 그동안 맺어왔던 밀착 행보가 잠시 주춤거리고 있다.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는 지난 2월 4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 가졌던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국영 가스 기업인 가스프롬과 연 100억㎥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또 다른 에너지 회사인 중국석유화공(SINOPEC)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논의를 중단했다. 서방이 러시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제재가 중국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Chen Aizhu 외 2022).²⁹⁾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쌓아온 긴밀한 협력관계를 비춰봤을 때 경제제재의 위기를 벗어나면 양국의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현재 중국이 보여주는 모호한 태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선택이 향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와 영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 판단된다.

EU는 중국과의 중요한 교역파트너이자 거대시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EU와 러시아와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나토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가입을 신청했다는 것은 유럽 안보 지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나토의 회원국이던 덴마크가 지난 6월 1일, 30여 년 만에 EU 공동방위 정책에 합류하기로 했다. 때의 회원국 27개국 중 공동방위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덴마크마저 태도를 바꾼 것은 유럽 전체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한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비중을 줄이는 대응을 하는데, 중국의 러시아 에너지 수입 확대와 같은 조치들은 이 같은 EU 대응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즉, 중국의 러시아 지원 행위가 EU의 인내심을 넘어선다면 중국 역시 EU의 거대한 시장을 잃을 수 있게 된다.

29) 출처: <https://www.reuters.com/article/ukraine-crisis-china-russia-idCNL2N2VS0WS> (검색일: 2022. 07. 13.).

2. 일대일로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특수한 관계를 구축해왔다. 러시아와는 에너지 사업과 군사 관련 협력을 해왔고 우크라이나와는 중국의 대러시아 협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농업과 일부 산업에서의 협력을 확대해왔다. 러시아가 이전을 꺼리는 군사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형성된 군수 가치사슬을 활용하며 협상력을 키워온 것이다(김석환 2022, 115). 특히,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아시아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고 201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이래 꾸준히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교역액은 93억 7천만 달러로 2020년 동기 대비 47.5%나 증가했다. 유라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1).³⁰⁾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의 거점 국가로서 양국은 2021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인프라 건설 분야 협력 심화에 관한 협정(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乌克兰政府关于深化基础设施领域合作的协定)」을 체결하기도 했다(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21).³¹⁾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중국-유럽’ 화물 열차 서비스가 일부 중단되거나 노선 변경되었다. 이 노선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것으로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물류 계속해서 악영향을 받게 된다. 일대일로의 중심이 되는 철도 노선 등의 연결과 물류의 역동성 확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유라시아 물류망은 중국의 생산지와 유럽의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일대일로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전쟁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만약 미국과 서방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제재 대상이 되어 있는 러시아 철도가 운영하는 노선을 활용해 물류를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김석환 2022, 118).

‘일대일로’ 전략은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묶는 초연결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과 중국을 잇는 초연결에 단절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중국이 더욱 복잡한 심경인 것은 바로 자신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국가 러시아에

30) 출처: https://www.mfa.gov.cn/chn/pds/gjhdq/gj/oz/1206_40/sbgx/t7133.htm (검색일: 2022. 07. 13.).

31) 출처: <http://www.mofcom.gov.cn/article/xwfb/xwblhdhd/202107/20210703172615.shtml> (검색일: 2022. 07. 13.).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러시아의 남하 전략을 봉쇄시켜 영원히 유라시아 대륙에 고립시키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돈바스-마리우폴-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종단회랑을 확보하게 된다면, 중국의 입장에선 유럽으로 이어지는 ‘일대일로’ 라인을 끊어버리는 비수(匕首)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협력의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고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구국가의 연대가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양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과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있었던 분쟁의 경험과 ‘일대일로’ 추진 당시 중앙아시아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했던 러시아(윤성학 2022, 94)를 떠올려보면, ‘확장된 유라시아(Greater Eurasia)’ 전략을 추진하는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대일로’ 추진에 위협이 되고 있으니 중국의 의심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일대일로’가 맞이할 수 있는 최대 위기는 전략 추진의 효과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미국과 유럽의 사이에서의 전략적인 이득과 유럽 시장의 확보라는 목적을 내포한 ‘일대일로’가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돈독해진 미·유럽 관계 속에서 전략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대러시아 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유럽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게다가 전쟁이 진행 중이던 6월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와 함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항해 6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결정되었다는 점(Reuters 22/6/27)³²⁾은 앞으로의 ‘일대일로’ 추진을 더욱 압박할 것이다.

3. 중국 내 분리독립과 대만 문제

왕이 외교부장이 표명한 중국의 5가지 입장에는 “중국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존중하고,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이 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하게 적용된다”라는 내용이 언급된다. 이는 중국이 이번 전쟁에서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나토의 동진과 그리고 러시아의 합리적 안보 우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침공행위 자체는 1953년 저우언라이 총리가 천명한 중국외교의 기본 원칙인

32)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refile-us-aims-raise-200-bln-part-g7-rival-chinas-belt-road-2022-06-26/> (검색일: 2022. 07. 13.).

‘평화공존 5원칙’과는 어긋나는 행위인 것이다. 중국이 만약 러시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선다면, 러시아가 침략의 명분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의 분리독립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꼴이 된다. 문제는 분리독립 문제를 동일한 관점에서 중국에 적용했을 때 신장위구르와 티벳 나아가 홍콩의 분리독립 주장에 논리적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크림반도 합병 때와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승인한 돈바스 지역의 독립문제를 중국이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신장위구르와 티벳, 홍콩, 그리고 중국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대만에게 독립의 명분을 스스로 제공해주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이는 작년 7월 26일에 미 국무부 장관인 웬디 셔먼(Wendy Sherman)과 왕이 외교부장의 회담에서 중국이 제시한 대미 3대 마지노선을 통해 더욱 확실히 증명된다. 중국이 제시한 3대 마지노선의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중국의 국가 주권을 침해해선 안 되고 중국의 영토보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신장·시짱(티벳)·홍콩·대만과 관련한 주권과 안보가 훼손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니 미국은 신중히 행동하길 충고한다고 밝혔다(인민망 21/07/27).³³⁾

중국이 더욱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중국의 이 같은 처지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4일, 우크라이나의 외교장관인 쿨레바는 왕이 외교부장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평화공존 5원칙을 옹호하고 실천하는 위대한 국가라고 언급하며, 중국이 휴전과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b).³⁴⁾ 이는 러시아의 침공행위가 평화공존 5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이며, 러시아 지원에 대한 중국의 선택에 많은 부담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주목을 받은 지역은 대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대만 수복에 대한 의지는 강하게 표출되었다. 물론 전쟁 이후, 중국의 대만 수복 의지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가 연결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만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라고 경고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c).³⁵⁾ 그러나

33) 출처: <http://kr.people.com.cn/n3/2021/0727/c203278-9877268.html> (검색일: 2022. 07. 13.).

34) 출처: https://www.mfa.gov.cn/web/wjzbzd/202204/t20220404_10664583.shtml (검색일: 2022. 07. 13.).

35) 출처: https://www.mfa.gov.cn/web/wjzbzd/202207/t20220709_10717967.shtml (검색일: 2022. 07. 13.).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만 통일을 향한 미래는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우선 전쟁 후, 대만의 반응이다. 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 전담반을 구성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중국의 무력 침공 우려 목소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한 연례 방어훈련인 한광(漢光)훈련을 실시했다. 미국 역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군사적인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BBC 22/05/23).³⁶⁾

하지만, 중국은 이런 대만과 미국의 반응보다도 스스로가 이번 전쟁을 바라보면서 무력을 통한 대만 수복의 방식을 재고하리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막강한 군사력 차이와 육로가 연결된 지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의외로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만해협이라는 천연장벽과 대만을 지원해줄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이 배후에 있다는 점에서 대만을 손쉽게 수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이번 전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 진영에서의 대러시아 제재 참여 적극성과 강도가 생각보다 강력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무력을 동반한 방식의 침공행위를 한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지속할 것인데, 이는 중국이 무력의 방식을 동원해 대만을 수복을 시도할 시 예상되는 결과이다. ‘인류운명공동체’를 제기하고 ‘평화공존 5원칙’을 천명한 중국이 무력을 동반해서 대만을 점령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향해 강경한 태도를 보일수록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한 국제사회는 중국의 의도를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으로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권위주의 진영에 대한 반발심과 더불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결국, 대만과의 통일 문제에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더욱 딜레마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판단되고, 적절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대만 통일이라는 미래 영원히 이루지 못할 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V. 결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대륙에서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전면전이다. 전쟁의 발발과 함께 세계는 미국과 서방 국가를

36)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61548531> (검색일: 2022. 07. 13.).

중심으로 뭉치는 민주주의 국가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국가 진영으로 균열과 단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번 전쟁은 그동안 국제사회를 휘감고 있던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신냉전의 위기감을 본격적으로 폭발시킨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침공 이후 닷새가 지나지 않아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협상은 3월 2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만5개월이 다 되어가는 전쟁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쟁 발생과 함께 일제히 러시아를 비난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달리 중국은 초기 러시아를 향한 규탄 결의에 기권하는 등 우회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7일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 외교 정책과 대외 관계에 관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착종복잡(错综复杂)’이라 언급하며,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의 주권과 영토보존은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d).³⁷⁾ 이는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입장 지지에서 한 발짝 물러난 발언이다. 하지만, 전쟁의 원인이 복잡하다는 표현은 러시아가 침공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나토에 의한 안보 위협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는 볼 수 없다. 중국은 다소 모호한 입장의 노선을 가져가며 전쟁에 관한 중국의 책임론³⁸⁾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중재자의 역할을 모색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유럽 정상들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와 힘을 합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의 중재자 역할은 앞선 우크라이나 외교부 쿨레바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평화공존 5원칙이 언급되었던 4월의 통화 이전인 3월에 가진 통화를 통해 중국에 중재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부상하였다(동아일보 22/03/01).³⁹⁾ 중국의 중재자 역할에 기대하는 시선과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공존하지만, 중국으로선 양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외교적 선택지를 하나 더 가진 셈이다.

37) 출처: https://www.fmprc.gov.cn/web/ziliao_674904/zt_674979/dnzt_674981/qtzt/gwwyjwj_bzwyhdzjzwtw/ (검색일: 2022. 07. 15.).

38) 러시아가 서방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침공을 감행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 때문이라 것. REUTERS 22/02/27.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white-house-calls-china-condemn-russias-invasion-ukraine-2022-02-27/> (검색일: 2022. 07. 15.).

39)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01/112103819/1> (검색일: 2022. 07. 16.).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중국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바라보고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유지해야 하고 미국의 견제에서도 벗어나면서 유럽의 시장을 지켜야 하며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관리해 일대일로 주도국으로서 참여국들에게 보여줄 중국의 지위와 리더십 등의 문제에서 정치·외교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이 러시아의 지원 요청에도 큰 몸뚱이를 쉽사리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기권하는 등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소 모호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속히 종료되거나 만약 장기화로 간다면 역할 부재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최대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러시아 은행이 SWIFT 결제망에서 제외된 것은 중국으로선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해왔다. 2015년에 이르러선 CIPS(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을 개발해 SWIFT 결제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왔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독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스위스 등 23개 은행 및 404개 금융기관과 연결된 자체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를 보유하고 있는데 CIPS와 연결된다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서정경 2022).⁴⁰⁾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증가시킨 통화량의 영향으로 유발된 세계인플레이션 문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장기적으로 미국 달러 패권의 하락을 가속화한다든지, 강력한 제조업이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진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더 높은 위상과 목소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터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등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관점에서도 유럽의 안보 불안을 초래한 러시아로 인한 나토의 확장과 유럽의 군비 확장,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과 권위주의 국가 진영의 분열과 격돌 등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번 전쟁은 중국에게 있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을 자극해 대만해협의 위기를 일으켜 미·중 패권경쟁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러시아 제재 통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결속시킨 힘을 대중국 봉쇄에 사용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반면,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인식하게 된 경제의 중요성에 주목해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가 더욱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일대일로는 일부 부채의 경고 속에서도 개발도상국들의 안정적인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코로나

40) 출처: <http://diverseasia.snu.ac.kr/?p=5739> (검색일: 2022. 07. 12.).

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백신을 공급하는 등 안정과 평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전쟁이 언제 종료될지는 알 수 없으나, 종료된 후에는 경제를 어떻게 다시 발전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할 것이고 여기서 중국 취할 영역이 많다는 사실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에 앞으로의 상황을 선불리 예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전쟁으로 미국이 최대 수혜를 봤고 최대 피해는 중국이 봤다는 견해와 그 반대의 견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전쟁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변화하는 각국의 입장에 자세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고명현. 2022.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략적 함의: 억지력 개념 중심으로.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김경순. 2018.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우크라이나사태를 중심으로-. 한국군사, 제4호.
- 김규철. 2022.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전망. 글로벌국방, 7.
- 김석환. 2022.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전략에 파장-. KIET 산업경제 22년 6월, 115-118.
- 박성준. 2022.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정학적 함의. 국제전략 Foresight Vol. 08, 14.
- 서정경. 2022.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 학계의 다양한 인식. 다양성+Asia 17호, 출처: <http://diverseasia.snu.ac.kr/?p=5739> (검색일: 2022. 07. 12.).
- 성기영 외.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가와 향후 국제질서 전망. 국가전략연구 2022-1, 64-65.
- 신성호. 2022.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관계 및 한반도. 아시아브리프 2권 19호.
- 윤성학. 2022.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32권 제1호, 94.
- 윤영관. 2022.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아시아브리프 2권 23호.
- 이영학. 2022.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분석 및 향후 전망. KIDA동북아안보 정세분석.
- 이흥석. 2022. 억제와 동맹 관점에서 본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국방, 22.
- 임진희.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과 시사점-정부와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CSF전문가오피니언. 출처: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6344&mid=a20200000000&board_id=4 (검색일: 2022. 07. 13.).
- 정태요. 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입장 연구. CSF전문가오피니언. 출처: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6280&mid=a20200000000&board_id=4 (검색일: 2022. 07. 10.).
- 조영관. 2022.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의 변동: 미·중·러를 중심으로. 다양성+Asia 17호, 출처: <http://diverseasia.snu.ac.kr/?p=5781> (검색일: 2022. 07. 12.).

- 최소령 외. 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시각. 성균차이나브리프 제10권 제2호(통권63호), 109-110.
- 표나리. 2022.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역할. IFANS FOCUS. 출처: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pblctDtaSn=13989&cIcode=P07&menuCl=P07> (검색일: 2022. 07. 13.).
- 황상필. 2022. 시진핑 시기 중·러 전략적 협력의 한계: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5(2), 67.
- 홍완석 역. 2005. 현대 러시아 국가체제와 세계전략. 한울아카데미, 524-531.
- Aizhu, Chen et al. 2022. EXCLUSIVE-China's Sinopec pauses Russia projects, Beijing wary of sanctions -sources (검색일: 2022. 07. 13.).
- Barabanov, Mihail et al. 2012. Military Reform: Toward The New Look of The Russian Army. Valdai Discussion Club.
- Brzezinski, Z. 김명섭 옮김. 2000. 거대한 체스판. 삼인, 70.
- Hass, Ryan. 2022/03/01. Ukraine presents opportunity to test China's strategic outlook. The Brookings Institution. 출처: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2/03/01/ukraine-presents-opportunity-to-test-chinas-strategic-outlook/> (검색일: 2022. 07. 13.).
- Timothy Snyder twitter. 출처: <https://twitter.com/timothydsnyder> (검색일: 2022. 07. 12.).
- 冯玉军. 2022/05/21. 俄乌战争的起源 前景与战略影响. 爱思想. 출처: <https://m.aisixiang.com/data/133907.html> (검색일: 2022. 07. 13.).
- 胡伟星. 2022. 俄乌冲突, 大国竞争与世界地缘政治格局的演变-以地缘政治学为研究视角. 亚太安全与海洋研究 No.4.
- 倪峰 외. 2022. 俄乌冲突对国际政治格局的影响. 国际经济评论 No.3, 61.
- CRS. 2022. Renewed Great Power Competition: Implications for Defense-Issues for Congress. Version: 92.
- SIPRI. 2022.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21. 6.

- The White House. 2022. Background Press Call by a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on President Biden's Call with President Xi Jinping of China. 출처: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s-briefings/2022/03/18/background-press-call-by-a-senior-administration-official-on-president-bidens-call-with-president-xi-jinping-of-china/> (검색일: 2022. 07. 13.).
- 동아일보. 우크라, 중국에 중재 요청…中 “협상 통해 문제 해결해야”(22/03/01).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301/112103819/1> (검색일: 2022. 07. 16.).
- 시사저널. 아프리카연합 “러시아산 곡물·비료는 제재 예외로 해야”(22/06/20). 출처: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753> (검색일: 2022. 07. 12.).
- 위키트리.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대사 단독 인터뷰 ①] “푸틴, 세 가지 오판… 전투서 이기고 전쟁서 졌다”(22/03/08). 출처: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37414> (검색일: 2022. 07. 13.).
- 인민망. 왕이, 우크라 사태에 대한 中 3가지 입장 피력(22/07/08). 출처: <http://kr.people.com.cn/n3/2022/0708/c203278-10120689.html> (검색일: 2022. 07. 13.).
- _____. 왕이, 중미 관계에 대한 중국의 3대 마지노선 제시(21/07/27). 출처: <http://kr.people.com.cn/n3/2021/0727/c203278-9877268.html> (검색일: 2022. 07. 13.).
- 중앙일보. 우크라이나 "러시아 걱정 말고 자자"…8년 내전에 무더졌나(22/01/26).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715> (검색일: 2022. 07. 12.).
- YTN. 서방 제재 비웃는 푸틴…"러시아 흑자 사상 최고"(22/04/19). 출처: https://www.ytn.co.kr/_ln/0104_202204190354281355 (검색일: 2022. 07. 12.).
- ALJAZEERA. NATO to deploy thousands of commandos to nations near Ukraine(22/02/25). 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22/2/25/nato-allies-to-provide-more-weapons-to-ukraine-stoltenberg-says> (검색일: 2022. 07. 12.).
- BBC. What are the sanctions on Russia and are they hurting its economy? (22/06/27).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0125659> (검색일: 2022. 07. 12.).
- _____. Biden vows to defend Taiwan in apparent US policy shift(22/05/23). 출처: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61548531> (검색일: 2022. 07. 12.).

13.).

- NATO. Bucharest Summit Declaration. 출처: https://www.nato.int/cps/en/natohq/official_texts_8443.htm?selectedLocale=en (검색일: 2022. 07. 12.).
- REUTERS. White House calls on China to condemn Russia's invasion of Ukraine(22/02/27).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white-house-calls-china-condemn-russias-invasion-ukraine-2022-02-27/> (검색일: 2022. 07. 15.).
- _____. Ukraine rejects Russia's genocide claim, asks U.N. court to halt invasion (22/02/28)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ukraine-lodges-case-against-russia-world-court-zelensky-2022-02-27/> (검색일: 2022. 07. 12.).
- _____. G7 aims to raise \$600 billion to counter China's Belt and Road(22/06/27) 출처: <https://www.reuters.com/world/refile-us-aims-raise-200-bln-part-g7-rival-chinas-belt-road-2022-06-26/> (검색일: 2022. 07. 13.).
- UN. General Assembly Overwhelmingly Adopts Resolution Demanding Russian Federation Immediately End Illegal Use of Force in Ukraine, Withdraw All Troops. 출처: <https://press.un.org/en/2022/ga12407.doc.htm> (검색일: 2022. 07. 12.).
- UNOHCHR. Ukraine: civilian casualty update 4 July 2022. 출처: <https://www.ohchr.org/en/news/2022/07/ukraine-civilian-casualty-update-4-july-2022> (검색일: 2022. 07. 12.).
-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further-information-the-summit-for-democracy/> (검색일: 2022. 07. 13.).
- 闫琪. 专家学者共议世界变局下的“大裂化”趋势(2022/05/22). 출처: http://www.cssn.cn/zx/bwyc/202205/t20220522_5409167.shtml (검색일: 2022. 07. 13.).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21. 中国与乌克兰签署政府间 深化基础设施建设领域合作协定. 출처: <http://www.mofcom.gov.cn/article/xwfb/xwbldhd/202107/20210703172615.shtml> (검색일: 2022. 07. 13.).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2a. 王毅阐述中方对当前乌克兰问题的五点立场. 출처: http://newyork.fmprc.gov.cn/web/wjzbzhd/202202/t20220226_10645790.shtml (검색일: 2022. 07. 13.).
- _____. 2021. 中国同乌克兰的关系. 출처: https://www.mfa.gov.cn/chn/pds/gjhdq/gj/oz/1206_40/sbgx/t7133.htm (검색일: 2022. 07. 13.).

- _____ 2022b. 王毅司乌克兰外长库列巴通电话. 출처: https://www.mfa.gov.cn/web/wjzbzhd/202204/t20220404_10664583.shtml (검색일: 2022. 07. 13.).
- _____ 2022c. 王毅司美国国务卿布林肯举行会晤. 출처: https://www.mfa.gov.cn/web/wjzbzhd/202207/t20220709_10717967.shtml (검색일: 2022. 07. 13.).
- _____ 2022d. 国务委员兼外交部长王毅就中国外交政策和对外关系回答中外记者提. 출처: https://www.fmprc.gov.cn/web/ziliao_674904/zt_674979/dnzt_674981/qtzt/gwwywjwjbzwyhdzwjztw/ (검색일: 2022. 07. 15.).

- 中国标准服务网 <https://www.cssn.cn>
- 凤凰网视频 <https://finance.ifeng.com>
- 新华网 <http://www.xinhuanet.com>
- 央视网 <http://tv.cctv.com>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http://www.mofcom.gov.cn>
-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http://newyork.fmprc.gov.cn>

● 투고일: 2022.07.21. ● 심사일: 2022.07.24. ● 게재확정일: 2022.08.16.
--

| Abstract |

The Study on The Ukraine War and China's Position

Jung Hokyu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eace Research Institution)

On 24 February 2022, Russia launched a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With the prolonged war and Western sanction, Russia requested China for military and economic support. However, China is showing a rather passive response and ambiguous attitude. China is in a dilemma of choice due to China-Russia relations, China-Ukraine relations, and China-U.S.-China-EU relation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organize discussions related to China's position and response in a dilemma situation, and to analyze problems related to China. This is expected to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to check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Ukrainian war and analyze China's position changes and predict China's response in the future.

〈Key words〉 Ukraine war, China's position, China's dilemma, China-Russian relations